

냉전 질서를 흔드는 여성의 글쓰기



김 은 하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익숙하면서도 낯선 장면에 시선이 붙들렸다. 화면 속에서 ‘터미네이터’ 풍의 남자가 미간에 주름을 잡은 채 “너 인성에 문제 있지?” “대가리 박아!”라고 다그친다. 체면조차 차릴 수 없이 지친 남자에게 ‘얼차려’를 시키며 쪼아대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오래 전에 잊었다고 ‘믿었던’ 불쾌한 기억이 ‘플레이시백’처럼 되돌아왔다. 고통에 대한 호소를 불성실이나 의지박약으로 ‘번역’하는 의도적 무지, 타인에 대한 모욕을 ‘교육’인 양 포장하는 폭력불감증, 소통의 거부와 공감의 불가능성이라니 ‘기시감’이 느껴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군사주의’ 문화 속에서 영혼에 내상을 입으며 성장했던 ‘나’의 세대적 기억이 아니었다. 그 프로그램의 주 시청층은 젊은이들이기 때문이다. 어느 부분이 웃음 코드일까? <장르 만 코미디>라는 제목이 고차방정식 같다.

군사주의 문화가 코미디 소재, 즉 놀이가 되었으니 “진지총” 인증하듯이 오버할 필요는 없을까? ‘군사주의 문화’는 서바이벌이 극도로 어려워진 시대를 맨 몸으로 헤쳐 나가야 하는 청년들의 ‘생존 테크놀로지’로 과거로부터 귀환해 오고 있는 중이다. 체제에 복종한다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인간’ 바깥으로 밀려나지는 않으리라는 슬픈 계산이 아마도 깔려 있을 것이다. “얼차려 체제”(상명하복)에서 성장한 “꼰대”들에게 덜 “끼이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지 모른다. 신자유주의는 누구에게도 특권은 없고 만인은 경쟁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그런 말이야말로 현실의 불공정을 은폐하는 ‘상투어’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젊은이들의 ‘똑똑함’이 새삼 놀라우면서도 걱정도 된다. 놀이가 진지해지면 풍자의 의도는 사라지고 비정상이 정상을 자처한다. 더군다나 풍자의 의도조차 보이지 않지 않은가.

이렇듯 서두가 길었던 것은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읽은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2)』(1981)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나는 이 작품을



김 교수는 “페미니스트로서 글쓰기의 정체성을 의식했던 박완서에게 냉전체제 비판은 군사주의 문화를 뒤흔들기 위해 불가피한 과제였다”고 강조한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여성문학사에서 여성 작가가 우리의 일상을 떠받치고 있는 군사주의 문화, 나아가 냉전체제를 비판하며 평화 운동의 주체로 나선 사례로 기억한다. 박완서는 6·25를 자유를 지키기 위한 호국 영령들의 희생서로 미화하며 분단을 지향하고 국민을 군사주의적으로 조직화해 온 냉전 국가에 맞서고자 했다. 전쟁을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인륜성의 파괴와 ‘폭력’으로 고발한 것이다. 아마도 엘리트 남성이라면 “여류”的 시선은 가족사적 체험에 갇혀 있어서 감상적이며, 국제관계학적인 차원에서 전쟁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명’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에 비통해하지 못하다면 프리모 레비가 말한 대로 전쟁의 재발을 막는 ‘면역방어체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

이 소설은 ‘나’가 모종의 불안에 시달리다가 귀가해 노모의 사고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야기가 더 전개되면 ‘나’는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은 ‘엄마’(반드시 모어로 불러야 한다)가 미취 상태에서 광란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며 엄마의 ‘오지’ 속에 감춰진 게 사랑과 평화가 아니라 원한과

증오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엄마는 환각 속에서 당신의 다리를 부여잡고 “내 새끼”라고 외치며 인민군에게 맞선다. 엄마는 오빠가 공포로 서서히 망가지다가 잔류한 북한군의 총에 맞아 죽은 시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자신만 편하자고 자식을 토해낼 수 없어 차라리 죽은 자식의 무덤이 된 것이다. 딸은 아들을 종교처럼 여기는 엄마의 가부장제를 질투하다가도 불쌍한 엄마에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박완서는 『엄마의 말뚝』에서 애도되지 못한 오빠의 시신을 끌고 나와 전체주의적 폭력을 고발하며 냉전체제를 넘어서는 여성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모색했다. 대통령이 버리고 떠난 서울에서 피난을 가지 못한 오빠는 공산당을 탈당한 전력이 문제가 되어서, 또 서울이 수복된 후에는 대한청년당에게 공산당 부역자로 몰려 들볶였다. 이념의 괴물에게 아들을 뺏긴 ‘엄마’가 철조망 너머로 아들의 뺏가루를 뿐리는 모습은 권력의 기호로서 ‘아버지’가 아니라 실립과 생명의 존재로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글을 쓰겠다는 작가의 다짐을 응축하고 있다. 재가 된 아들의 육신을 바람 속

에 날리는 엄마의 모습은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티” 없이 “방금 출전 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다. 박완서는 “분단이란 괴물을 훌로 거역”하는 엄마에 대한 공감을 통해 “여류작가는 안 되리라, 어떡하든 그냥 작가가 돼 보리라 다짐했었다”는 다짐을 지켜 냈던 것이다.

페미니스트로서 글쓰기의 정체성을 의식했던 박완서에게 냉전체제 비판은 군사주의 문화를 뒤흔들기 위해 불가피한 과제였다. ‘군사주의’는 집단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분하게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집단적 폭력을 사용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념이다. 이런 집단적 폭력을 가능케 하는 집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사로서의 남성성과 그런 남자다움을 보조해주는 여자다움의 형성이 요구된다. 또한 병사로서의 남성성이 사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여성들에게는 성녀/마녀, 즉 집안의 여자와 바깥의 여자라는 공간적 위상이 부여된다. 평화학 연구자인 베티 리어든은 “전쟁의 작동 원리 자체에 인간의 특성을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나누고 위계화하는 성차별주의가 자리한다는 것, 그렇

기에 성차별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최근 방송되고 있는 〈나는 살아 있다〉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증가하고 있는 여성 예능으로 군사주의 문화를 여성중심적으로 차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가뜩이나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데 ‘코로나’ 재난까지 겹쳐 개인의 취약성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를 지키며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워진 시대에 청년 여성들의 영혼은 불안으로 파먹히는 중이다. 1997년 국가부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시에 여성들은 일순위로 노동 시장에서 잘려나갔지만, 늘 재난은 “고개숙인 아버지”나 남성 청년의 실업으로 표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의 자기 무장은 애처로운데가 있다. 그러나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발로 서서 걷는 신여성이 되기 위해서 ‘군사주의’와 ‘사병으로서의 남성성’을 학습하고 모방해야 한다는 점은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이 얘기를 좀더 깊이 하려면 다음에 ‘재난’ 시대에 대한 젠더 분석을 해야 할 것 같다.